

다솜한국학교, TK반 신설...한국어 교육 대상 넓힌다

✎ 조민혁 기자 | ☎ 승인 2026.09.07 06:14

2026-2027학년도 개강...유아 단계부터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학생·교사 수상식도 열려...차세대 정체성 교육 강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다솜한국학교 개강식 장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의 다솜한국학교(교장 최미영)가 올해부터 TK(Transitional Kindergarten)반을 신설하며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대상을 유아 단계까지 확대했다.다솜한국학교는 9월 5일(현지시간) 산호세한인장로교회에서 2026-2027학년도 개강식을 열고 새 학년도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신설된 TK반은 기존 학생 중심의 한국어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린 연령부터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개강식에서는 새 학년도 교사와 각 반 담임·보조교사를 소개하고 학생과 교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했다.

샌프란시스코 총영사상은 박준우·안아라 학생이 받았으며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차세대 리더상 금상에는 박준우·안아라·윤지윤·나예준 학생이, 제14회 백범일지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평화상은 김이룬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다솜한국학교는 2004년 개교한 주말 한국학교로, 한인 차세대에게 한국어와 역사·문화를 가르치며 한국계 미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을 이어가고 있다.



조민혁 기자 dongponews@hanmail.net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